

국립중앙박물관 100배 즐기기!

중·근세관



나는 입니다.

..... 학교 학년 반입니다.

나에게 박물관은 입니다.

전시품에게 물어 보세요!
비어 있는 말풍선 2개에는 여러분의 질문을 적어 보세요.



전시품과 약속해요!

- ☐ 전시품과 대화하며 천천히 걸어 다녀요.
- ☐ 눈과 마음으로 전시품을 감상해요.
- ☐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어요.
- ☐ 관람 중에는 휴대 전화를 쉬게 해요.
- ☐ 음식은 전시품을 관람하기 전이나 정해진 곳에서 먹어요.
- ☐ 사진은 삼각대나 플래시 없이 찍어요.

전시품을 만나 대화할 준비가 되었으면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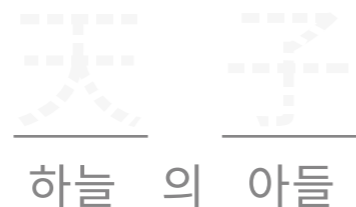
묘지명을 보면 계급이 보인다!



북령궁주 묘지명
'궁주'는 궁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찾아보자!

동그라미 안에 있는 한자를 찾아서 점선을 연결하며 읽어 보세요.



생각하자!

묘지명의 주인인 북령궁주(숙종 임금의 딸)는 “천자(天子)의 딸”로 불렸습니다. 천자는 누구일까요?



고려 시대에는 왕을 천자, 황제로 불렸습니다.
고려가 천하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고려
사람들의 높은 자긍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찾아보자!

꽃잎이 8장인 꽃 모양의 묘지명을 찾아 테두리 점선을 연결하며 묘지명을 그려 보세요.

적어 보자!

네모 빈칸의 한자 ‘호장’을 찾아 적어 보세요.

지역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향리 중 가장
높은 직책을 호장(戶長)이라고 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묘지명 중
향리의 묘지명은 이것이 유일하지요.

■ 내 고향은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_____의 묘지명



경주 향리 딸의 묘지명

만들어 보자!

나의 묘지명을 만든다면 들어갈 내용 5가지를
생각해서 왼쪽 빈 묘지명에 적어 보세요.



묘지명이란?
무덤 주인이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후세에
전하기 위해 무덤 안에 넣은 기록물입니다.

묘지명에 들어가는 내용은?
죽은 사람의 출신지, 집안, 가족 관계, 행적, 인품,
죽음을 슬퍼하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삶을 비춰주는 거울



🔍 찾아보자!

거울에서 발견한 것을 표시해 보세요.

- ☒ 나무
- ☐ 전각에서 몸을 반쯤 내밀고 있는 사람
- ☐ 방아를 찡고 있는 토끼

거울에서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건축 양식을 한 ‘전각’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와 전각이 새겨진 거울(뒷면)
‘전각’은 궁궐이라는 의미입니다.

💡 생각하자!

거울 가운데 고리에 구멍이 나 있어요.
구멍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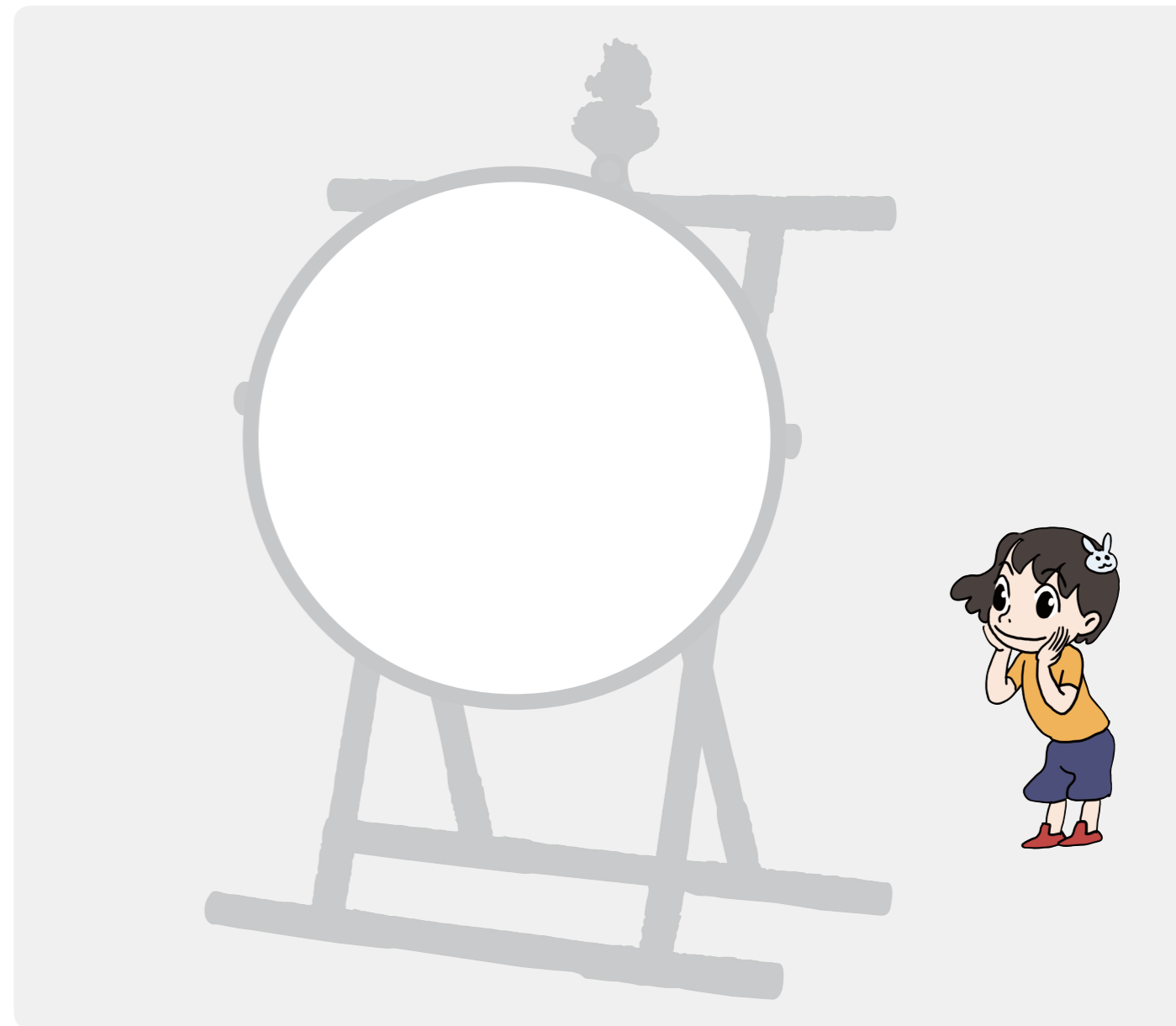


거울은 뒷면의 고리에 끈을 묶어서 옷에 매달거나,
손으로 잡거나, 거울걸이에 걸어서 사용했습니다.



🎨 그려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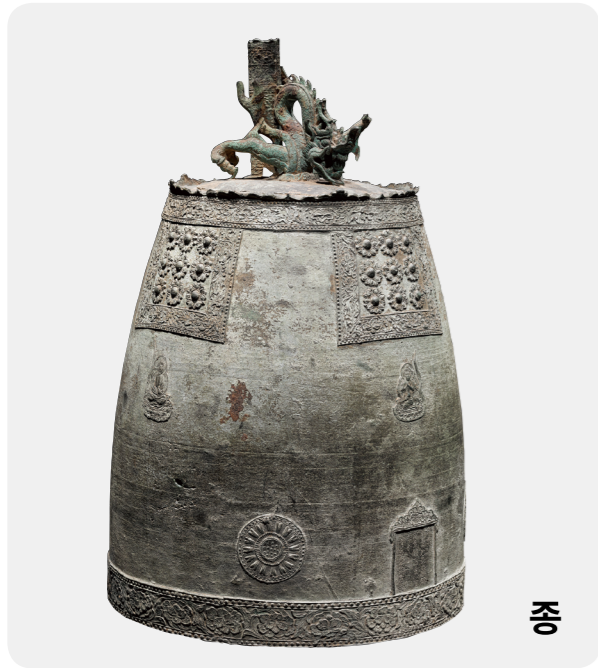
거울이 걸려 있는 거울걸이를 찾아 빈 거울에 나의 20년 후 모습을 상상하며 그려 보세요.



정성과 소망을 담은 불교 의식구

🔍 찾아보자!

불교 의식이나 행사에 사용하던 도구 중, ‘종’과 같이 소리가 나는 2가지를 찾아 빈칸을 채우고 그려 보세요!



종



령



반자

🌸 상상하자!

각각 어떤 소리가 날까요? 마음으로 들어 보세요.



금강령이란?
부처를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잠자는 불성을 깨우기 위해 흔드는 방울입니다.
반자란?
불교 의식에서 주로 음식을 먹거나 바치는 공양시간을 알리고 대중을 불러 모을 때 사용하는 쇠북입니다.

🔍 찾아보자!

승려가 몸에 지니고 있는 3가지 물건을 전시실에서 찾아 그 이름을 적어 보세요.

지팡이

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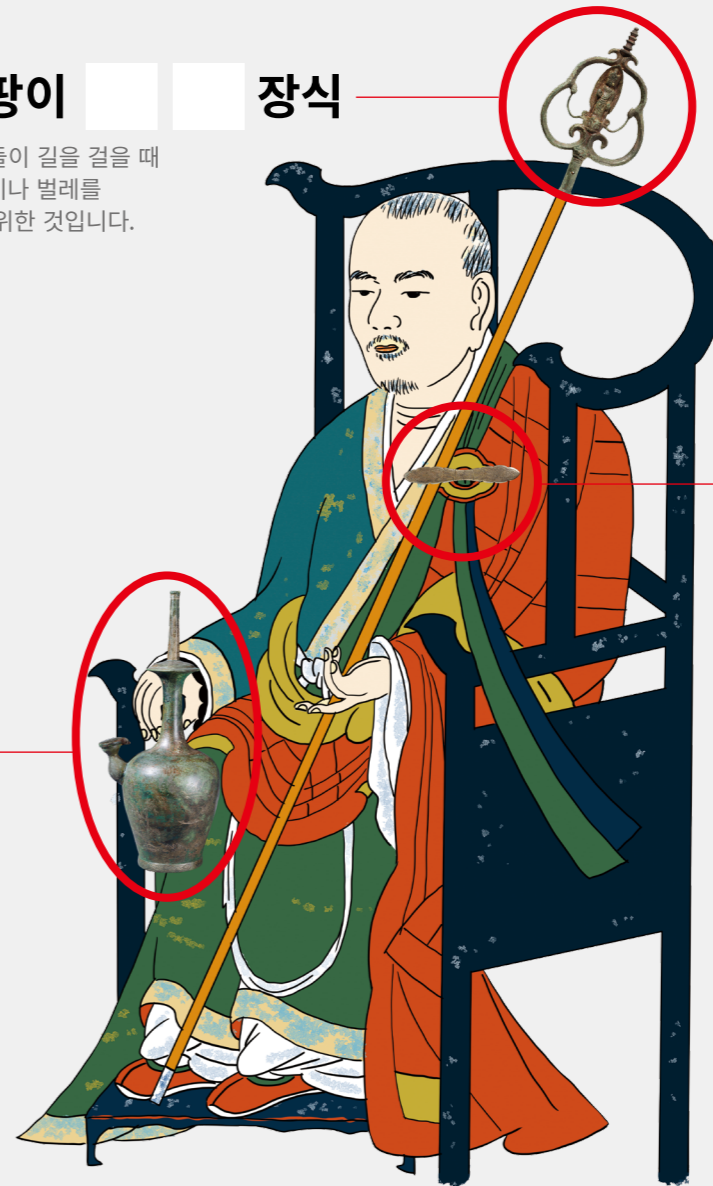
승려들이 길을 걸을 때
짐승이나 벌레를
쫓기 위한 것입니다.

정병

맑은 물을 담아 두는
병입니다.

꾸미개

승려의 승복인 장삼 위에
걸치는 가사의 띠를
왼쪽 가슴 위에 고정하는
꾸미개입니다.



몸에 지니고 다니던 고려의 휴대용 물건들

🔍 찾아보자!

아래의 휴대용 물건을 찾아 빈칸을 채워 보세요.



최충헌 가족을 위한

이것은 최씨 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자 최충헌과 두 아들의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 만든 휴대용 경갑(불경을 넣는 상자)과 불경입니다.


경갑에는 탑과 수호신이 새겨져 있고, 고리에는 끈을 매어 차고 다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불경에는 '복을 누리며 오래오래 살기를 빌며'라는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몸에 지니는

이것은 보살과 수호신이 함께 들어 있는 작은 불감(불상을 모시는 방)입니다. 호신용으로 뚜껑을 닫아 몸에 지니고 다니다가 예배를 드릴 때 불감의 아래쪽을 잡아당겨 불상만 빠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 생각하자!

같은 전시실에 있는 일반 보살  과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이 작은 보살의 가로는 대략 4.5cm, 세로는 대략 4.8cm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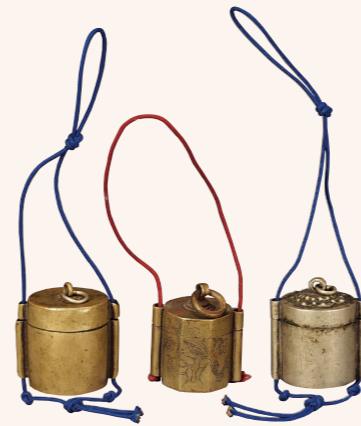
경전이나 보살을 작게 만들어 몸에 지니고 다닌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전이나 보살은 고려 사람들이 내세의 복을 구하는 예배의 대상이자 도구였습니다. 그들은 아주 작은 경전, 보살 등을 부적처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 그것이 자신을 지켜 준다고 믿었습니다.

몸에 지니고 다니던 조선의 휴대용 물건들

🔍 찾아보자!

아래의 휴대용 물건을 찾아 빈칸을 채워 보세요.



휴대용

조선 시대 선비들이 가지고 다닌 문구입니다. 이것은 끈을 달아 매달 수 있게 되어 있고, 내부에 먹솥이 들어 있습니다.

휴대용

음식과 액체를 보관하고 쉽게 운반할 수 있도록 만든 여러 층의 그릇입니다. 맨 아래에는 그릇을 놓고 그 위에 긴 병, 그 위에 잔 받침, 제일 위에는 잔을 얹어서 뚜껑을 덮는 조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상상하자!

① 나의 휴대용 물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휴대하는 이유를 생각해서 적어 보세요.

② “이런 물건을 가지고 다닌다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있나요? 미래에 발명될 것 같은
휴대용 물건을 하나 적고 친구에게 설명해 보세요.

예) 휴대용 침대: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펼쳐서 누울 수 있는 침대



살아 움직이는 글자, 활자



활자보관장

찾아보자!

활자들을 보관하던 활자보관장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돌아가서 얇은 장과 깊은 장
내부를 살펴보세요.

장은 2가지가 있지요.

- ☐ 칸막이가 없는 얇은 장 '서랍'
- ☐ 칸막이가 있는 깊은 장 '정간판'



서랍(위), 정간판(아래)

생각하자!

당시 활자를 정리하는 사람들도 글자를 모두 알지는
못했다고 해요. 많은 활자를 빨리 골라 빼고 넣어야 했던
사람들은 활자를 어떻게 분류해서 사용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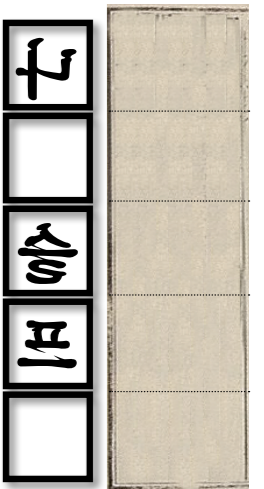
자주 사용하지 않는 글자는 비슷한 모양끼리 모아서
'서랍'에, 자주 사용하는 글자는 같은 글자끼리 모아서
'정간판'에 보관하였습니다.



한글 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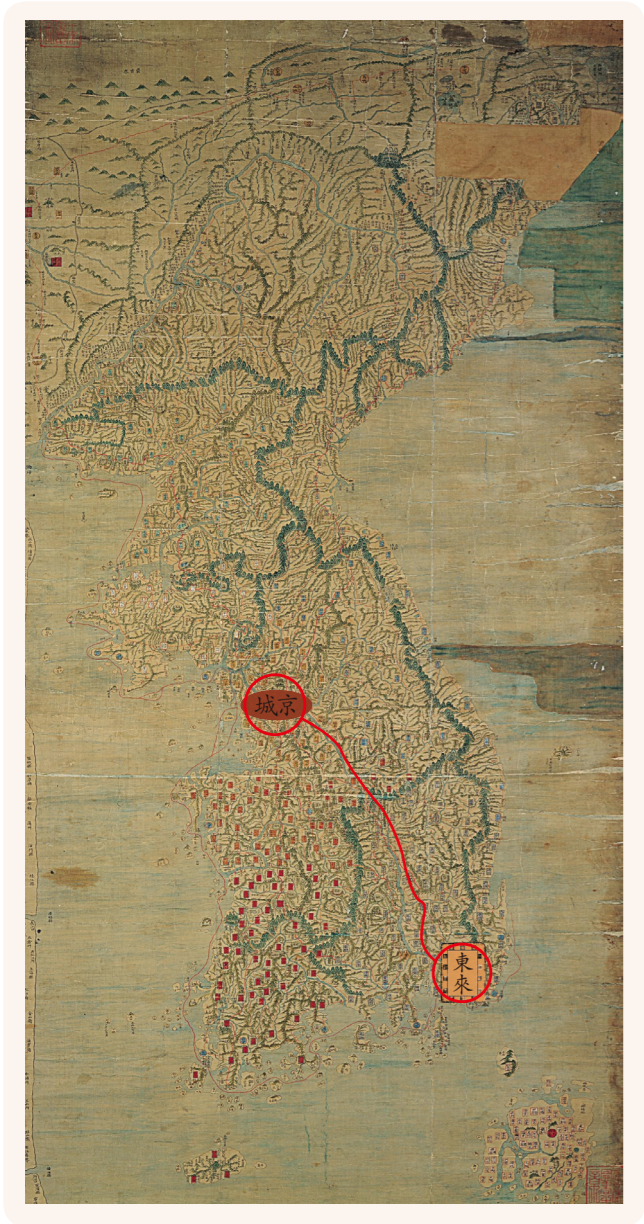
찾아보자!

- ① 전시실에서 한글 활자를 찾아보세요.
- ② 동그라미 친 활자들을 골라내어 빈칸을
채워 보세요.
- ③ 이 활자들을 종이에 인쇄하면 어떤 글자가
찍혀 나올지 적어 보세요.



'나라를 다스리려면 반드시 책을 널리 읽어야 한다.'라는 태종 임금의 말처럼 조선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책이 필요했고,
다양한 책들을 인쇄하기 위해 고려 시대에 발명된 금속 활자 인쇄술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활자는 한번 만들어 두면 필요할 때마다 조립해서 원하는 책을 신속하게 만드는 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조선 시대 활자는 대부분 한자 활자였지만 왕세자나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 위에서 살펴본 한글 활자로도 책을 만들었습니다.

조선을 걷다, ‘동국대지도’



동국대지도

🔍 찾아보자!

전시실에 있는 ‘동국대지도’를 찾아보세요.





- 초록색으로 표현된 짙은 산줄기를 찾아 눈으로 훑어 보세요.

백두산에서 시작해서 금강산을 거쳐 태백산과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힘찬 산줄기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나요?

- 경성 (城京) 지금의 서울에서 뻗어 나가는 6개의 붉은 선(육지 교통로)을 찾아보세요.
이 중 동래 (東來) 까지 연결된 도로를 찾아 손가락으로 그어 보세요.

교통로는 이 당시 지도가 나라를 다스리고 외적을 방어하기 위한 용도로 쓰였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 동국대지도에서 사용한 몇몇 기호입니다.
지도에서 살펴보고, 이밖에 어떤 기호들이 있는지 전시실 내 영상물에서 찾아보세요.

	고을 : 행정구역 *산성이 있는 고을은 테두리에 성벽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병영 : 육군 기지 수영 : 해군 기지
	군영 : 산성 : 산을 따라 쌓은 성
	봉수대 : 급한 소식을 전하는 군사의 통신수단

📐 만들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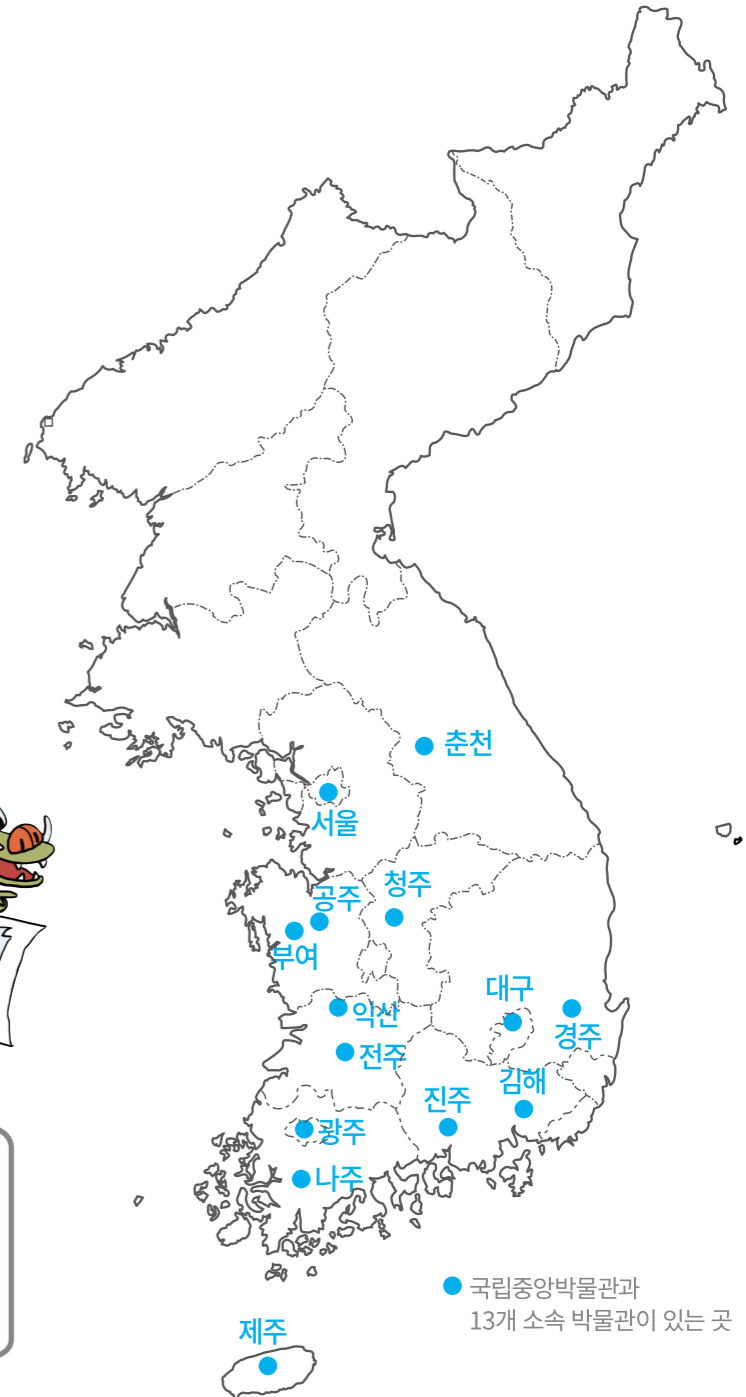
내가 만드는 우리 가족 지도!

- 지도에 표시할 기호를 만들어서 아래 ‘지도표’에 그려 주세요.
- 그 기호를 오른쪽 지도에 표시하세요.

지도표			
우리집	우리 할아버지의 고향	우리 가족이 여행 갔던 곳	우리 가족이 여행 가고 싶은 곳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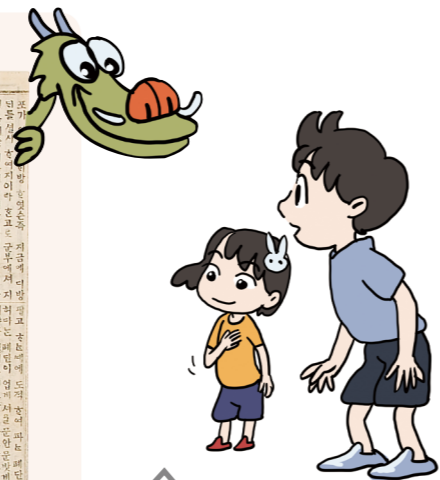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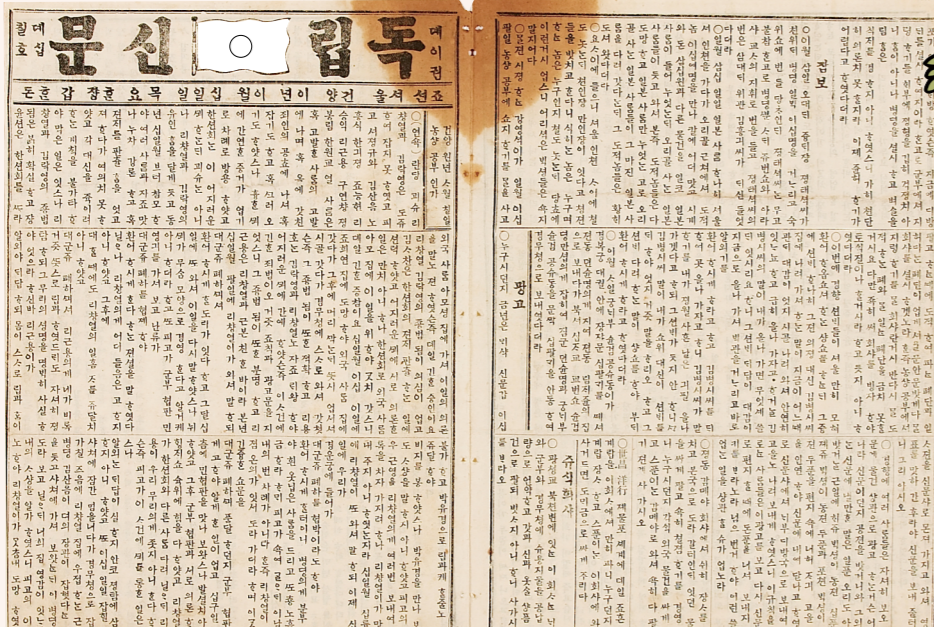


‘동국대지도’는 18세기 중엽 정삼기(1678~1752)가 제작한 우리나라 전국지도의 사본입니다. ‘동국’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를 달리 부르는 말입니다. ‘대지도’는 큰 지도를 뜻하는데, 실제 크기가 가로 137.5cm, 세로 272.2cm입니다. 이 지도는 전국의 모든 곳에 일정한 비율의 축척이 일관되게 적용되었으며, 다양한 지명이 특정한 기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 국립중앙박물관과
13개 소속 박물관이 있는 곳

독립의 염원을 담은 최초의 한글 신문



국립중앙박물관에는 발행일이 서로 다른 ‘독립신문’ 3부가 돌아가며 전시됩니다. 종이 가 빛을 오래 보면 바래기 때문입니다.

💡 생각하자!

‘독립신문’을 읽는 방식이 우리가 평소에 글을 읽는 방식과 어떻게 다른가요? **보기** 에서 알맞은 단어를 골라 적어 보세요.

보기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신문의 이름은 _____에서 _____으로 읽고,
기사 내용은 _____에서 _____로 읽어요.

‘대한제국실’에 있는 ‘독립신문’과 비슷한 형식의 신문을 찾아 제목을 읽고 써 보세요.

위 신문에 나온 통조림과 담배 광고도 살펴 보세요.



📐 만들어 보자!

오늘 박물관에서 기억에 남는 물건이나 사건이 있었나요?
위에서 살펴본 ‘독립신문’처럼 나만의 박물관 신문을 만들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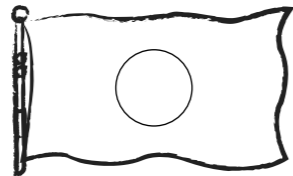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 신문		20__ . __ . __ . __ 요일
기사	광고	

🔍 찾아보자!

위의 신문을 읽으면서 빈칸을 채워 봅시다.
신문의 이름 : _____ 신문
최초 발행일 : 건양 원년 4월 7일

‘독립신문’은 1896년 4월 7일 창간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이자 한글 신문입니다.

신문의 이름에 있는 태극기를 따라 그려 보세요.



이 당시 태극기가 지금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나요?

오늘 박물관에서 만난 전시품을 떠올려 보세요.

그럼 이제 이 전시품들이 만들어진 고려, 조선 시대부터 지금까지 ‘나’ _____가(이) 살아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나 _____는(은) 고려부터 조선, 대한제국을 거쳐 1,000년을 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전시품 카드의 8가지 물건 모두가 나의 지나간 인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대도 신분도 뛰어넘은 나의 삶, 1,000년의 이야기를 완성해 주세요.”

- ① 각 전시품 카드 뒷면에 그 전시품과 얹힌 이야기를 상상해서 적거나 상황을 그려 보세요. 빈 칸에는 인상 깊게 본 전시품을 넣어 주세요.
- ② 각 전시품 카드는 이야기 흐름에 맞게 한 장씩 뜯어 자유롭게 배열하세요.
- ③ 완성된 이야기를 친구나 가족에게 들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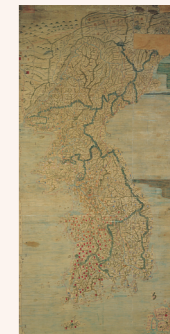
기획·개발: 교육과 박연희, 장연심, 서나임
감수: 고고역사부 이재정, 서윤희, 이수경, 이기현, 교육과 서성호
교정: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
발행: 국립중앙박물관
편집·디자인: 대원씨아이(주)
제작·보급: 국립박물관문화재단

© 이 학습지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국립중앙박물관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시품 대여, 교체, 수리 등으로 전시실에 없는 전시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값 2,000원



활자보관장

향리 딸의 묘지명

동국대지도

나무와 전각이 새겨진 거울

예) 따스한 고려의 어느 봄날,
나는 거울을 보며
단장을 하고 집을 나섰다.



독립신문

종

몸에 지니는 작은 보살